

워런 버핏 주식 행동수칙 12가지, 몰라서 계좌 녹이는 초보 투자자 특징

종목 고르는 눈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계좌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을 멈추는 순서입니다.

무료 · 수칙 1-8과 손실의 수학

유료 · 수칙 9-12 심층 + 체크리스트 + 시뮬레이션

SECTION 01 · 무료

1년에 몇 번 매매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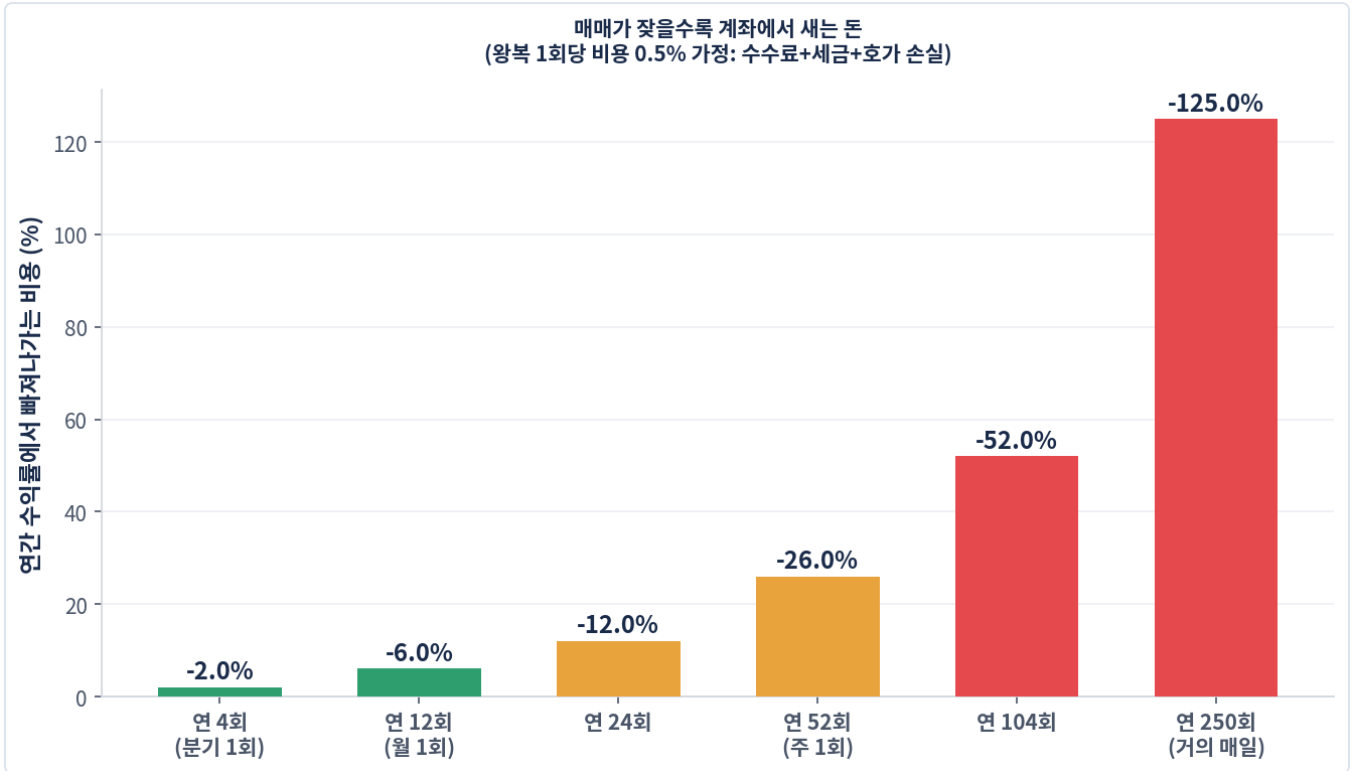
1년 거래내역을 열어보면, 워런 버핏의 행동수칙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내 계좌가 **투자 계좌인지, 매매 중독 기록장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잡게 됩니다. 이걸 지나치면 좋은 종목을 골라도 수수료, 세금, 감정 매매가 수익을 갉아먹는 구조를 못 봅니다.

먼저 증권앱을 켜세요. 수익률 화면 말고 **체결 내역**입니다. 1년 동안 매수와 매도를 몇 번 눌렀는지 세어보면 됩니다. 숫자가 생각보다 큼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는 종목을 자주 바꾸는 걸 “대응”이라고 부르지만, 계좌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운전대를 꺾는 행동입니다.

버핏의 첫 번째 행동수칙은 단순합니다.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이 말은 매일 뭔가를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가를 맞히려 하지 말고, 시간을 오래 내 편으로 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버핏은 “시간은 최고의 투자 도구다”라고 봤습니다.

매매가 많아질수록 투자자는 세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 오른 종목은 빨리 팔고 싶어진다. 계좌에 수익 숫자가 뜨면 손이 먼저 나간다.
- 빠진 종목은 몰타기로 버티기 쉽다. 손실을 인정하는 순간 실패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 새로 뜨는 종목을 보면 기존 종목이 갑자기 시시해 보인다. 어제 산 것도 하루 만에 낡아 보인다.



매매가 잦을수록 수수료·세금·호가 손실이 수익률을 갉아먹는다. 왕복 1회당 0.5% 가정 시, 주 1회 매매만으로도 연 26%가 비용으로 샌다.

문제는 이 행동들이 전부 “열심히 투자하는 느낌”을 준다는 점입니다. 버핏의 수칙은 정반대입니다. 모르는 기업은 사지 말고, 주가 말고 기업을 보라고 강조합니다. 아래처럼 자기 계좌를 먼저 분류해보면 좋습니다.

체크할 것	봐야 할 화면	질문
매매 빈도	1년 체결 내역	내가 왜 샀는지 지금도 설명할 수 있나
보유 기간	종목별 거래 기록	기업이 바뀌어서 판 건가, 주가가 흔들려서 판 건가
매수 이유	메모장 또는 주문 당시 기록	뉴스 제목 말고 사업 내용을 알고 샀나

여기서 불편한 답이 나오면, 이미 몇 가지 수칙을 어긴 것입니다.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매매 횟수가 많다는 건 정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매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수 이유가 사라졌을 때만 팔아라”가 기준입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팔면, 다음번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행동수칙 1~4 : 꾸준함과 공부의 함정

초보 투자자가 여기서 얻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잘 고르는 법보다 먼저, 망치는 행동을 멈추는 법.** 이걸 건너뛰면 좋은 종목을 사도 주가 흔들림 한 번에 팔고, 모르는 기업을 남의 말만 듣고 샀다가 계좌가 먼저 무너집니다.

버핏의 앞쪽 행동수칙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차트 비법도 아니고, 급등주 찾는 기술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루합니다. 그런데 초보 계좌는 보통 이 지루한 구간에서 깨집니다.

행동수칙	초보가 자주 착각하는 지점	버핏식 해석
1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타이밍을 맞히려 한다	시장에 오래 남는 사람이 유리하다
2	이름을 들어봤다는 이유로 산다	회사가 될 팔고 어떻게 돈 버는지 알아야 한다
3	주가가 오르면 좋은 회사라고 믿는다	주가는 흔들리고, 기업 실적은 쌓인다
4	공부를 몇 번 하면 끝났다고 생각한다	배우는 일을 멈추면 판단이 낡는다

행동수칙 1은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어라”입니다. 여기서 꾸준함은 매일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가를 맞히겠다는 욕심을 줄이고, 시장 밖으로 도망가지 않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초보는 반대로 합니다. 오를 것 같으면 몰아서 사고, 떨어지면 계좌 앱을 지웁니다.

행동수칙 2가 더 아픕니다. “모르는 기업은 사지 마라.” 초보가 가장 많이 어기는 규칙입니다. 대부분은 종목을 사기 전보다 산 뒤에 더 열심히 검색합니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버핏이 말한 최소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 무엇을 팔아서 돈을 버는가.
- 왜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가.

이 세 질문에 막히면 아직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냥 티커를 산 사람입니다. 티커는 주식 앱에 뜨는 약자일 뿐입니다. 내 돈을 벌어주는 것은 뒤에 있는 사업입니다.

행동수칙 3은 “주가 말고 기업을 봐라”입니다. 주가는 매일 움직이지만 기업이 돈을 버는 힘은 하루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봐야 할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장사입니다. 매출이 쌓이는지, 이익이 남는지, 고객이 계속 돈을 쓰는지.

행동수칙 4는 “공부를 멈추지 마라”입니다. 투자는 IQ가 높다고 이기는 일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무조건 승리하는 일도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정답을 빨리 푸는 사람이 이기는 곳이 아니라, 틀렸을 때 인정하고 다시 배우는 사람이 살아남는 곳입니다. 초보에게 공부는 두꺼운 책을 쌓는 일이 아니라, 내가 산 기업을 남에게 1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고쳐야 할 것은 행동수칙 2입니다. 모르는 기업을 사는 습관이죠. 이 하나만 줄여도 계좌에서 새는 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SECTION 03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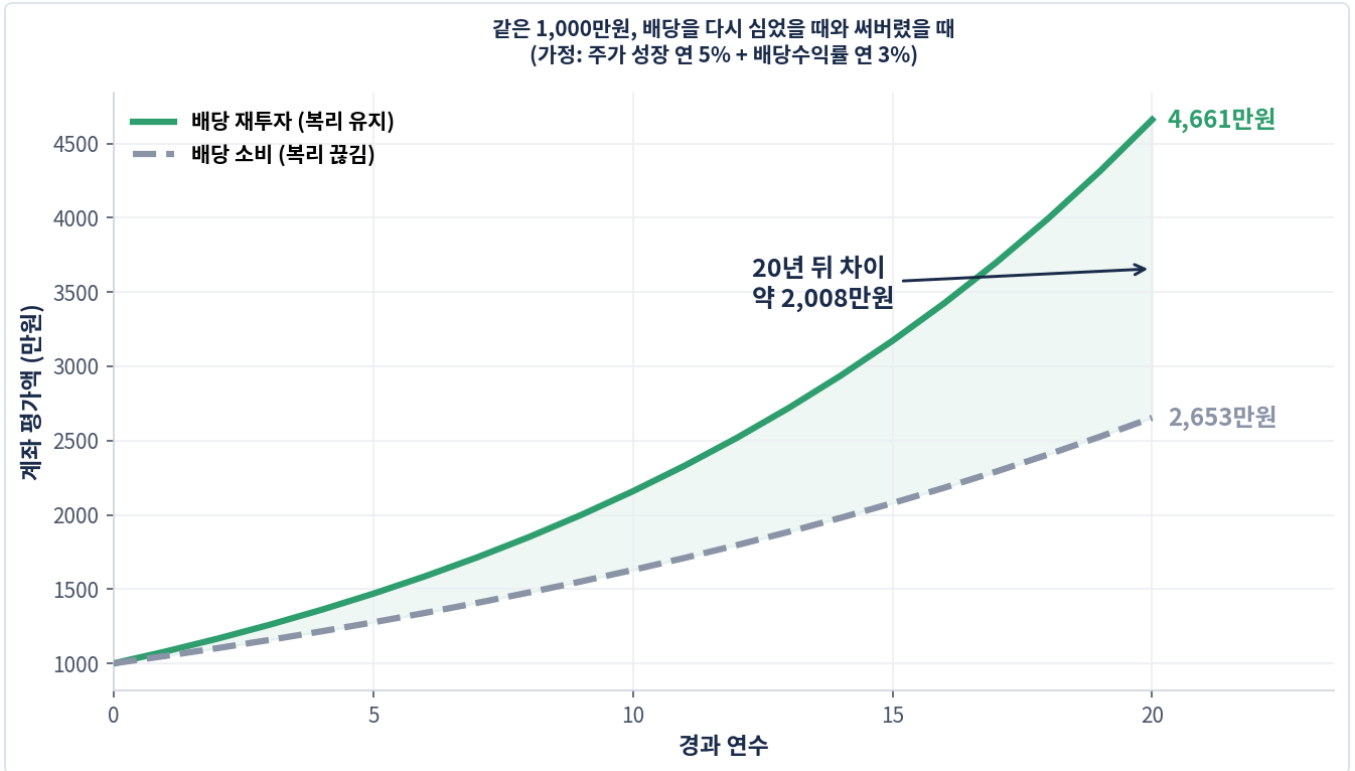
행동수칙 5~8 : 감정과 배당의 착각

여기서 얻을 건 단순합니다. 언제 팔지, 배당금을 어떻게 다룰지 기준이 생깁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계좌는 기업이 아니라 기분에 끌려가고, 배당금은 투자 엔진이 아니라 생활비 잔돈으로 사라집니다.

행동수칙	초보가 자주 하는 반대 행동	진짜 기준
5. 감정으로 매매하지 마라	무서우면 팔고 신나면 산다	공포와 욕심이 아니라 원칙을 따른다
6. 배당은 다시 투자하라	배당금을 공동처럼 쓴다	배당금으로 다시 자산을 산다
7. 좋은 기업은 오래 들고 가라	조금 오르면 바로 판다	기업 성장이 끝났는지 본다
8. 매수 이유가 사라졌을 때만 팔아라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판다	기업 가치가 변했는지 확인한다

행동수칙 5는 “감정으로 매매하지 마라”입니다. 공포에 팔고 욕심에 사면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에게 매수·매도 버튼을 맡기는 것입니다. 초보 계좌에서 자주 보이는 순서는 뻔합니다.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사고, 내리면 더 빠질 것 같아서 팝니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은 배당입니다. 배당금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다시 투자하지 않으면 그 돈은 계좌 밖으로 빠져나가고, 투자 속도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행동수칙 6**의 재투자자는 배당금으로 같은 기업이나 지수 ETF를 다시 사는 행동입니다. 복리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같은 1,000만원으로 시작해도, 배당을 다시 심은 계좌와 써버린 계좌는 20년 뒤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주가 성장 연 5% + 배당 연 3% 가정)

행동수칙 7도 같은 얘기입니다. 좋은 기업은 주가보다 실적이 먼저 자랍니다. 단, 오래 들고 가라는 말은 아무 주식이나 붙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주가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기업이 나쁜 기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팔아야 할 때는 따로 있습니다. 처음 샀던 이유가 깨졌을 때입니다.

- 제품이나 서비스가 예전만큼 팔리지 않는다.
- 기업이 돈 버는 구조가 망가졌다.
- 처음에는 싸다고 봤는데, 싼 이유가 분명해졌다.
- 경영진이 주주보다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긴다.

이럴 때는 손실이 나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오르내리는 숫자 색깔에 흔들려 사고팔면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 기분의 하청업자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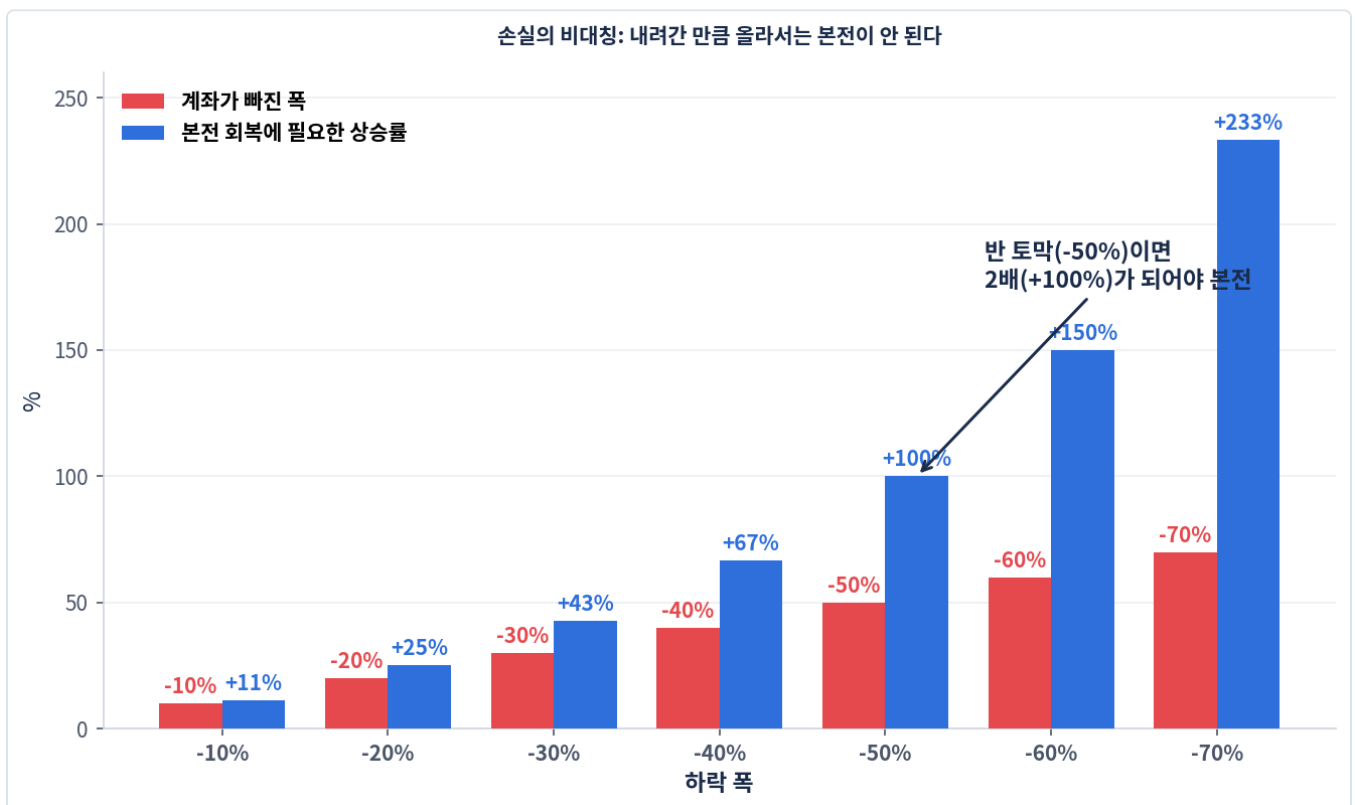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감정으로 사고팔지 말고, 배당은 다시 심고, 좋은 기업은 시간을 주고, 판다는 결정은 **가격이 아니라 이유로 내려라.**

버핏은 왜 손실을 수익보다 무서워했나

여기서 얻어갈 것은 간단합니다. **계좌가 한 번 크게 깨지면, 같은 힘으로는 원래 자리로 못 돌아온다**는 감각입니다. 이 걸 모르면 “이번에 50% 빠졌으니 50%만 오르면 복구”라고 착각하다가,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버핏의 **행동수칙 11**은 “손실을 먼저 생각하라”입니다. 더 직설적으로는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다.” 초보는 수익률을 볼 때 위쪽만 봅니다. 20% 먹을 종목, 2배 될 종목. 버핏은 반대로 봅니다. **얼마나 벌까보다, 어디까지 잃으면 게임이 끝나는지를 먼저 봅니다.**

손실이 무서운 이유는 수학 때문입니다. “손실의 비대칭”이라고 부르지만, 뜻은 쉽습니다. 내려갈 때와 올라올 때 필요한 힘이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락 폭이 커질수록 회복에 필요한 상승률은 훨씬 가파르게 늘어난다. -50%부터는 종목이 2배가 되어야 겨우 본전이다.

계좌가 빠진 폭	원금 회복에 필요한 상승률	실제 느낌
-10%	+11.1%	금방 만회 가능
-20%	+25%	한 번 좋은 반등이 필요
-30%	+42.9%	종목 선택이 다시 맞아야 함
-50%	+100%	2배가 되어야 본전
-70%	+233.3%	사실상 새 출발에 가까움

핵심은 -50%입니다.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되면, 다시 100만 원으로 돌아가는 데 100% 상승이 필요합니다. 반 토막 난 계좌는 “조금 더 오르면 복구”가 아니라, 종목이 2배가 되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버핏은 손실을 먼저 봅니다. 큰 손실 한 번이 앞에서 쌓은 작은 수익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초보가 특히 많이 걸리는 함정은 몰타기입니다. 문제는 **이유가 매수할 때보다 좋아졌는지**입니다. 기업 이익의 체력이 그대로인데 주가만 빠졌다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데 가격만 싸졌다면, 그건 할인 판매가 아니라 고장 난 물건입니다. 매수 버튼 앞에서 물어야 할 질문은 이렇습니다.

- “얼마나 오를까?”보다 “틀렸을 때 얼마까지 잃을까?”
- “지금 싸 보이냐?”보다 “왜 싸졌나?”
- “손실 중인데 버틸까?”보다 “처음 산 이유가 아직 남아 있나?”
- “남들도 물렸나?”보다 “내가 이 종목을 새로 산다면 오늘도 살까?”

버핏이 말한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표현은 구호가 아닙니다. 손실을 작게 끊어야 다음 기회에 다시 배팅할 돈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현금이 남아 있어야 다음 공이 옵니다.

SECTION 05 · 무료

한국 투자자가 12개 중 가장 많이 어기는 원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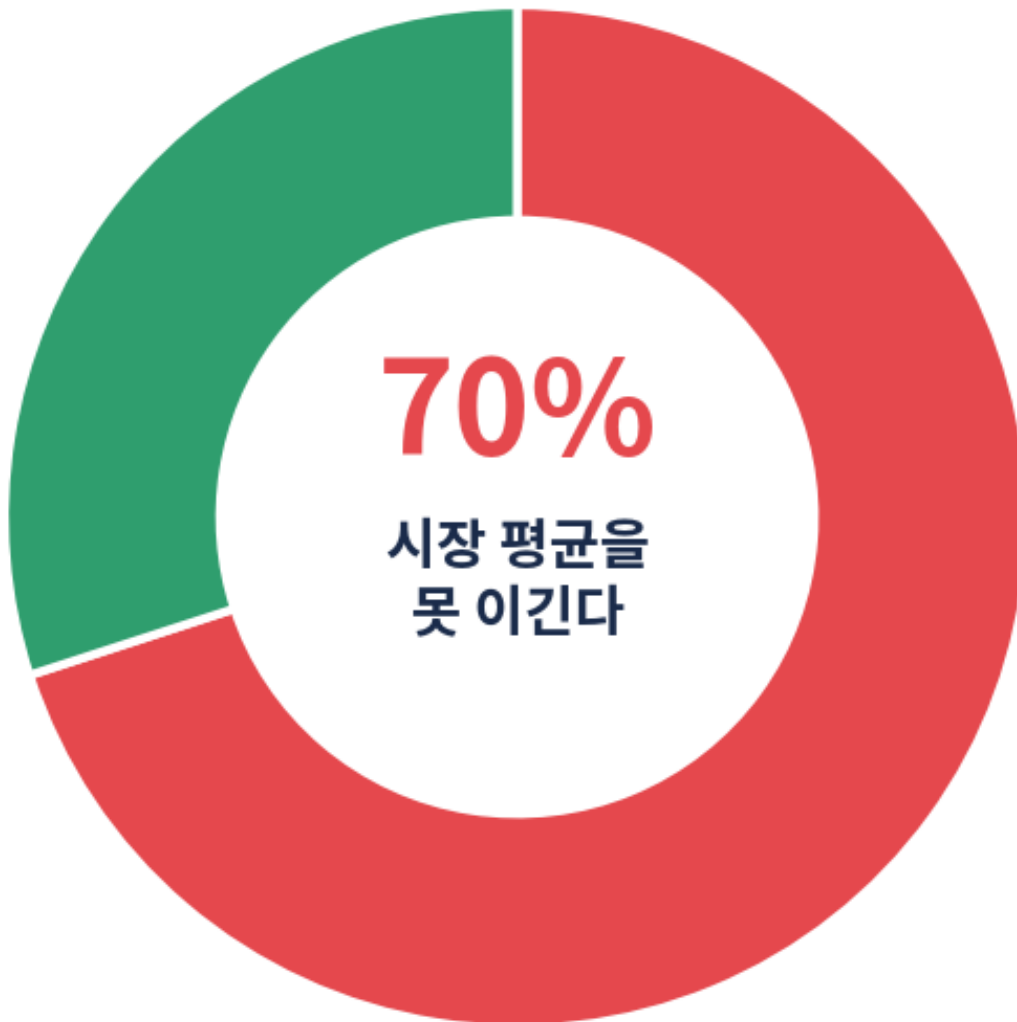
12개 중 하나만 고르라면, **행동수칙 10번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를 꼽겠습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내 계좌가 왜 자꾸 흔들리는지 바로 보입니다. 모르면 주식 실력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기기 어려운 게임판에서 계속 무리하게 배팅하게 됩니다.

핵심은 내가 매번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거의 70% 이상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시장 평균을 오래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상위권 투자자가 될 수 있다.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한다
→ 평균만 오래 따라가도 상위권



■ 시장 평균에 못 미침 (약 70%)
■ 시장 평균 이상 (약 30%)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시장 평균을 밑돈다. 뒤집어 말하면, 지수만 오래 따라가도 이미 상위권이라는 뜻이다.

초보가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은 “이번엔 내가 맞힐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좌가 조용히 망가집니다. 손실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매매가 반복되면서 서서히 새는 물통처럼 빠집니다.

많이 하는 행동	버핏식으로 보면
오르는 종목을 보고 뒤늦게 산다	주가를 보고 산 것
머칠 빠지면 바로 판다	기업이 아니라 감정에 반응한 것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둔다	복리의 속도를 스스로 늦춘 것
남이 번 종목을 보고 따라 산다	자신의 기준을 버린 것
지수 ETF를 만만하게 본다	시장 평균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

진짜 문제는 10번 하나만 여기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번을 여기면 “주가 말고 기업을 보라”는 3번도 같이 무너집니다. 주가창을 하루 종일 보면 기업은 안 보이고 색깔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투자는 분석이 아니라 반응 속도 게임이 됩니다.

“남의 수익률을 부러워하지 마라”는 12번도 같이 깨집니다. 남이 단기간에 번 수익을 보면 내 종목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고, 원래 세운 이유를 버리고 더 뜨거워 보이는 종목으로 갈아탑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계좌는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 손절한 종목은 나중에 다시 오른다.
- 갈아탄 종목은 내가 산 뒤부터 쉬어 간다.
- 현금은 없고, 마음은 늘 급하다.
- 정작 내가 왜 샀는지 설명할 수 있는 종목은 줄어든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벌어진 뒤 “이제 감이 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SECTION 06 · 유료

행동수칙 9~12 심층 분석 : 현금, 시장 타이밍, 질투

여기부터가 계좌 방어 핵심입니다. **현금을 언제 늘려야 하는지**, 그리고 개별 종목을 고집하지 말고 지수 ETF로 옮겨야 할 신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버핏식 현금은 놓고 있는 돈이 아니라 “최고의 대기석”입니다. 야구장 대기 타석에 선 타자처럼, 기회가 오면 바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리입니다.

행동수칙	초보가 자주 하는 반대 행동	바뀌어야 할 행동
9. 현금을 항상 남겨라	계좌에 돈이 보이면 바로 산다	기회가 와도 살 돈이 없으면 끝이라는 걸 먼저 인정한다
10.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	몇 종목만 잘 고르면 시장 평균을 쉽게 이긴다고 믿는다	개별 종목으로 계속 흔들리면 지수 ETF를 기본값으로 둔다
11. 손실을 먼저 생각하라	“얼마 벌까”부터 계산한다	“틀리면 어디서 멈출까”를 먼저 정한다
12. 남의 수익률을 부러워하지 마라	SNS 수익 인증을 보고 따라 산다	투자는 경쟁이 아니라 내 자산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못 박는다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 때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고 싶은 기업이 없는데도 손이 근질거리면 현금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 매수는 투자가 아니라 심심함을 달래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봤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말이 반복될 때입니다. 모든 돈을 이미 넣어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구경만 합니다. 하락장에서 버티는 힘도 결국 현금에서 나옵니다.

시장 타이밍에도 착각이 많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는 바닥과 꼭대기를 맞히지 말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내가 고른 몇 개 종목으로 시장 평균을 계속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부터 의심하라는 말입니다. 지수 ETF는 개별 기업 실적과 경영진, 산업 변화를 계속 챙기기 어려운 사람에게 더 솔직한 선택입니다. 갈아타야 할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 종목을 산 이유가 “오를 것 같아서” 한 줄밖에 없다.
- 하락할 때 추가 매수인지 손절인지 매번 새로 고민한다.
- 시장 평균보다 잘하고 있는지보다, 남이 얼마 벌었는지만 본다.

마지막은 질투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SNS에는 성공한 투자만 올라옵니다. 손절한 화면, 물린 계좌, 몇 달째 제자리인 포트폴리오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초보는 그 잘라낸 장면만 보고 내 계좌가 뒤쳐졌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부터 매매가 꼬입니다. 원래 보던 기업을 버리고 방금 오른 종목을 삽니다.

버핏의 문장이 이 섹션 전체를 묶습니다. 주식시장은 성공한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하는 곳입니다. 1년 수익률에 집착하면 매일 흔들리지만, 20년 뒤 자산을 성적표로 삼으면 현금도 전략이 되고 지수 ETF도 부끄러운 선택이 아닙니다.

SECTION 07 · 유료

12가지 중 우선순위 : 초보에게 가장 중요한 4가지

12개를 한 번에 지키려 하면 대부분 1주일도 못 갑니다. 여기서 얻을 것은 단순합니다. 계좌를 먼저 지키는 4개만 골라, 오늘 매수 버튼 앞에서 바로 쓸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버핏의 행동수칙은 초보에게 **브레이크 순서**입니다. 액셀을 밟기 전에 어디서 멈출지 정하라는 뜻이죠.

순서	붙잡을 행동수칙	실제로 할 일
1	11. 손실을 먼저 생각하라	사기 전에 “틀리면 언제 팔지”를 먼저 적는다
2	2. 모르는 기업은 사지 마라	회사가 돈 버는 방식을 설명 못 하면 매수 금지
3	9. 현금을 항상 남겨둬라	전부 매수하지 않는다. 기회는 현금 있는 사람에게 온다
4	8. 매수 이유가 사라졌을 때만 팔아라	주가가 흔들린 것과 기업이 망가진 것을 구분한다

1순위, 손실을 먼저 본다. 초보가 계좌를 망치는 장면은 대개 비슷합니다. 작게 샀다가, 떨어지면 더 사고, 더 떨어지면 “언젠가 오르겠지”로 바꿉니다. 손절은 겁쟁이 행동이 아니라 손실을 인정하고 파는 행동입니다. 매수 전에 “내 판단이 틀렸다는 증거”를 적어두면 주가가 빠질 때 핑계가 줄어듭니다.

2순위, 모르는 기업은 사지 마라. 그 회사가 누구에게 무엇을 팔아서 돈을 버는지, 왜 더 벌 수 있는지, 경쟁자는 누구인지 말로 설명 못 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친구가 “이거 왜 샀어?”라고 물었을 때 30초 안에 답이 안 나오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답이 “유튜브에서 좋다길래”라면 더더욱 안 됩니다.

3순위, 현금을 항상 남겨둬라. 현금은 놓고 있는 돈처럼 보이지만 하락장에서는 입장권이 됩니다.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을 남겨둔 사람뿐입니다. 현금을 남긴다는 건 시장을 맞히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판단이 틀렸을 때 숨 쉴 공간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4순위, 매수 이유가 사라졌을 때만 팔아라. 팔아야 할 때는 주가가 빠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샀던 이유가 깨졌을 때입니다. 초보는 여기서 자주 반대로 움직입니다. 기업은 괜찮은데 주가가 흔들리면 팔고, 기업이 망가졌는데 본전 생각 때문에 못 팝니다.

우선순위 4가지, 이렇게 기억하세요

- 먼저 망하지 않기 — 손실을 먼저 본다.
- 모르는 건 건드리지 않기 — 설명 못 하는 기업은 넘긴다.
- 항상 숨 쉴 돈 남기기 — 현금은 기회 비용이 아니라 선택권이다.
- 팔 이유를 주가에서 찾지 않기 — 매수 이유가 깨졌는지만 본다.

12개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초보에게 필요한 것은 암기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행동수칙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이 표는 버핏의 행동수칙을 “좋은 말”로 끝내지 않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표시를 해보면 손실을 부르는 습관이 바로 보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 O : 최근 매매에서도 지켰다
- △ : 머리로는 알지만 자주 흔들린다
- X : 거의 못 지킨다

행동수칙	자가진단 질문	표시
1.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주가를 맞히려 하기보다 오래 버티는 구조를 만들었나?	O △ X
2. 모르는 기업은 사지 마라	이 회사가 무엇을 팔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설명할 수 있나?	O △ X
3. 주가 말고 기업을 봐라	주가가 흔들릴 때 실적과 사업을 먼저 확인했나?	O △ X
4. 공부를 멈추지 마라	매수한 뒤에도 기업을 계속 따라가고 있나?	O △ X
5. 감정으로 매매하지 마라	공포에 팔고 욕심에 산 적이 최근에도 있었나?	O △ X
6. 배당은 다시 투자하라	배당금을 소비하지 않고 다시 투자할 계획이 있나?	O △ X
7. 좋은 기업은 오래 들고 가라	기업이 성장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조급하게 팔았나?	O △ X
8. 매수 이유가 사라졌을 때만 팔아라	주가 하락이 아니라 기업 가치 변화 때문에 팔았나?	O △ X
9. 현금을 항상 남겨둬라	폭락 때 살 수 있는 현금을 남겨뒀나?	O △ X
10.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	개별 종목을 잘 모르면 지수 ETF를 선택할 수 있나?	O △ X
11. 손실을 먼저 생각하라	수익보다 큰 손실을 피하는 기준을 먼저 세웠나?	O △ X
12. 남의 수익률을 부러워하지 마라	SNS 수익 인증을 보고 내 원칙을 흔들 적이 있나?	O △ X

O가 많다고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반복되는 X**입니다. 초보에게 특히 위험한 조합은 따로 있습니다.

- **5번 X + 12번 X** : 남의 수익률을 보고 감정 매매를 한다
- **8번 X + 11번 X** : 왜 샀는지 잊고, 손실 기준도 없다
- **2번 X + 10번 X** : 기업도 모르는데 시장 평균을 인정하지 않는다
- **6번 X + 7번 X** : 배당은 쓰고, 좋은 기업은 빨리 판다

이 조합이 무서운 이유는 계좌가 나빠져도 원인을 종목 탓으로 돌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행동이 문제인데 말이죠. 점검 결과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O 개수	상태	해석
10개 이상	원칙이 몸에 붙은 단계	큰 실수만 피하면 된다
7~9개	흔들리지만 회복 가능한 단계	X가 찍힌 항목부터 고치면 된다
4~6개	매매 습관 점검이 필요한 단계	종목보다 행동수칙을 먼저 봐야 한다
3개 이하	계좌 방어가 약한 단계	지금은 수익률보다 손실 차단이 먼저다

가장 먼저 고칠 항목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5번을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정 매매가 잡히지 않으면 공부도, 배당 재투자도, 장기투자도 오래 못 갑니다.

SECTION 09 · 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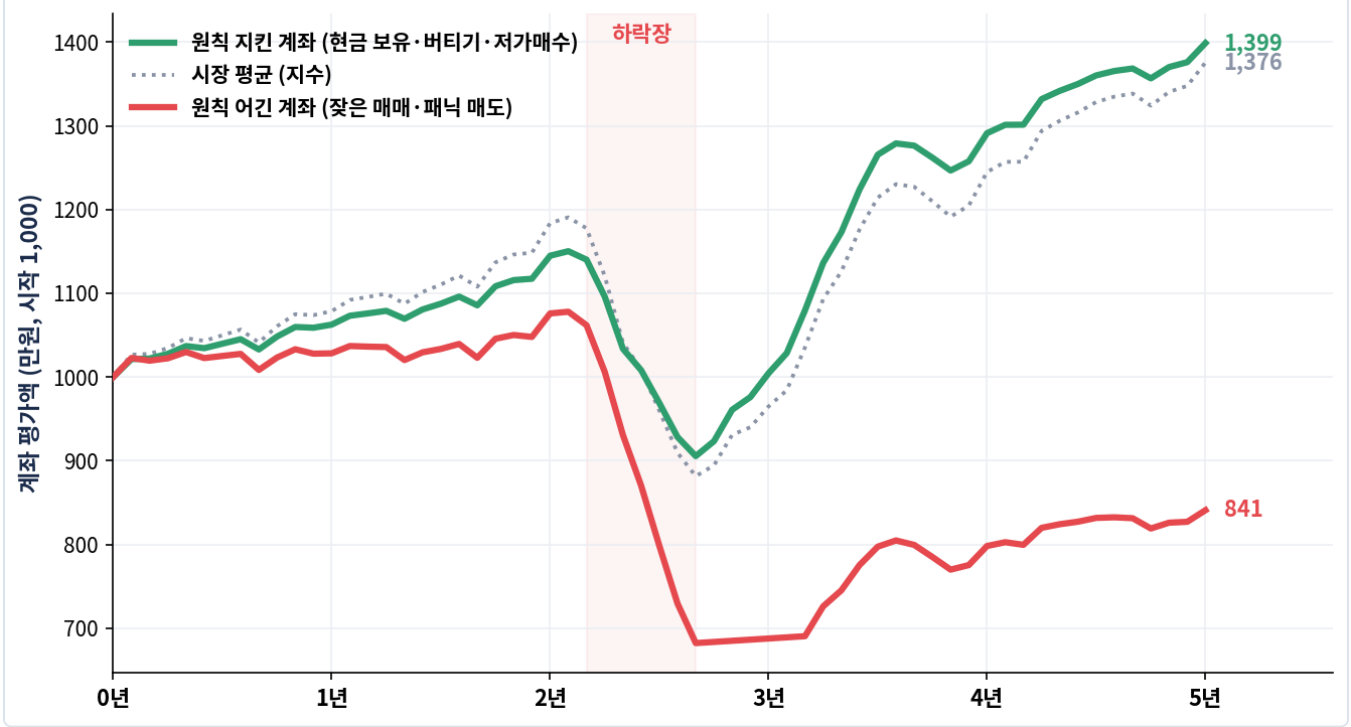
버핏 원칙을 따른 계좌 vs 어긴 계좌

이 섹션에서 얻을 것은 수익률 숫자 하나가 아니라 **계좌가 망가지는 순서**입니다. 같은 시장에 있었다고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계좌는 시간이 갈수록 단순해지고, 다른 계좌는 매매 이유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구분	버핏 원칙 계좌	반대로 한 계좌
매수 전	어떻게 돈을 버는지 확인하고 산다	이름을 많이 들어봤다는 이유로 산다
주가 하락	기업 가치가 그대로면 버틴다	하락하면 팔고, 물린 것은 붙잡는다
배당	받은 배당을 다시 투자한다	배당을 공돈처럼 써버린다
현금	일부를 남겨 폭락 때 쓴다	돈이 생기면 바로 전부 넣는다
매도 기준	매수 이유가 사라질 때만 판다	주가가 흔들리면 판다
종목 선택	어렵다면 지수 ETF로 간다	시장을 이기겠다며 계속 갈아탄다
비교 대상	자기 원칙과 비교한다	SNS 수익률과 비교한다

초반에는 반대로 한 계좌가 더 재미있어 보입니다. 매일 사고팔고, 종목 이름도 자주 바뀝니다.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버핏 원칙 계좌는 심심합니다. 모르는 기업은 안 사고, 주가보다 기업을 보고, 배당이 들어와도 다시 넣습니다.

5년 예시 시뮬레이션: 차이는 하락장에서 벌어진다
(가정: 시장 연 8% 성장 + 중간 하락장 1회, 어긴 계좌는 매매비용·패닉매도·회복 놓침 반영)



평상시에는 세 선이 비슷하게 간다. 격차는 하락장에서 벌어진다. 패닉 매도로 손실을 확정하고 회복장을 놓친 계좌는 5년이 지나도 원금 아래에 머문다. (가정을 단순화한 예시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하락장에서 벌어집니다. 현금을 남겨둔 계좌는 좋은 기업이 싸졌을 때 손이 나지만, 모든 돈을 이미 넣어버린 계좌는 화면만 봅니다. 배당도 작아 보이지만 방향을 바꿉니다. 소비하면 돈이 계좌 밖으로 빠지고, 재투자하면 보유 수량이 늘어 다음 배당의 씨앗이 됩니다. 복리는 거창한 공식이 아니라 들어온 돈을 계좌 안에 남기는 습관입니다.

5년이 지나면 두 계좌의 차이는 종목 수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 버핏 원칙 계좌는 매수 이유가 짧다. “이 기업은 돈을 이렇게 벌고, 아직 이유가 깨지지 않았다.”
- 반대로 한 계좌는 변명이 길다. “이번에는 다를 것 같고, 누가 좋다고 했고, 손실이 너무 커서 못 판다.”
- 버핏 원칙 계좌는 현금이 기회가 된다. 반대로 한 계좌는 현금이 없어서 기회를 구경한다.

핵심은 수익률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큰 실수를 줄이는 능력**입니다. 원칙을 지킨 계좌는 좋은 기업이 시간을 먹고 자라게 두고, 원칙을 어긴 계좌는 주인이 매일 뿌리를 뽑아 성장했는지 확인합니다.

SECTION 10 · 유료

오늘부터 적용할 행동 3가지

오늘 바꿀 것은 많지 않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 배당이 들어온 날, 남의 수익 인증을 본 날** 이 세 장면만 잡으면 됩니다.

순서	오늘 할 행동	연결되는 행동수칙
1	매수 전 5문장 메모를 쓴다	2. 모르는 기업 사지 마라 · 3. 주가 말고 기업을 보라
2	배당과 추가 매수를 자동 규칙으로 묶는다	1. 꾸준히 투자하라 · 6. 배당은 다시 투자하라
3	현금과 손실 기준을 먼저 정한다	9. 현금을 남겨라 · 11. 손실을 먼저 생각하라

첫째, 매수 전 5문장 메모. 종목을 사기 전에 딱 다섯 줄만 적으세요.

-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은 무엇인가.
- 내가 이 회사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주가가 아니라 기업을 보고 산 이유는 무엇인가.
- 어떤 일이 생기면 매수 이유가 사라지는가.
- 손실이 나면 몇 번까지 추가 매수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멈출 것인가.

이 다섯 줄을 못 쓰면 아직 살 때가 아닙니다. “좋아 보인다”는 매수 이유가 아니고, “남들도 산다”는 더 위험합니다. 설명 못 하는 종목은 사지 않는다.

둘째, 배당은 다시 투자하는 규칙으로 묶는다. 배당이 들어오면 마음이 느슨해져 커피값처럼 쓰거나 총동 매수하기 쉽습니다. 초보라면 복잡하게 굴릴 필요 없습니다.

- 배당이 들어오면 같은 종목을 더 살지 먼저 판단한다.
- 매수 이유가 그대로면 재투자한다.
- 매수 이유가 깨졌다면 현금으로 둔다.
- 배당을 받은 날 새로운 종목을 즉흥으로 사지 않는다.

대부분의 실수는 돈이 들어온 날 시작됩니다.

셋째, 현금과 손실 기준을 매수 전에 정한다. 현금이 없으면 좋은 기회가 와도 손가락만 빨고, 손실 기준이 없으면 떨어질 때마다 “장기투자”라는 말로 버티게 됩니다. 오늘 바로 정할 기준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 계좌 안에 항상 남겨둘 현금 비중을 정한다.
- 개별 종목을 살 때 “매수 이유가 사라지는 조건”을 먼저 쓴다.
- 시장 평균을 이기겠다는 욕심이 커질 때는 지수 ETF를 비교 대상으로 둔다.
- 남의 수익률 인증을 본 날에는 매수하지 않는다.

오늘 할 일, 세 줄 요약

- **사기 전에 쓴다** — 5문장 메모를 못 쓰면 사지 않는다.
- **배당은 다시 굴린다** — 돈이 들어온 날이 가장 위험한 날이다.
- **현금과 손실 기준을 먼저 정한다** — 버핏의 원칙은 계좌를 지키는 행동 순서다.

SECTION 11 · 부록

용어 사전

이 섹션만 읽어도 앞에서 나온 핵심 단어는 막히지 않습니다.

■ **지수 ETF**

S&P500, 나스닥100 같은 시장 대표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든 상장 펀드. 개별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면 시장 전체에 나눠 사는 방식에 가깝다.

■ **시장 평균**

투자자 전체가 대략 얻는 평균 성과. 버핏이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고 할 때의 시장은 보통 이 넓은 기준을 말한다.

■ **재투자**

배당금이나 매도 후 남은 돈을 다시 투자하는 행동. 배당을 바로 써버리면 복리 효과가 끊긴다.

■ **복리**

이익이 다시 원금에 붙고, 커진 원금에서 또 이익이 나는 구조. 시간이 길수록 힘이 세진다.

■ **장기투자**

기업 가치가 커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투자. 하루 주가보다 기업이 돈을 더 잘 버는지에 초점을 둔다.

■ **단타**

짧은 시간 안에 사고팔며 가격 차익을 노리는 방식. 매매가 잦을수록 판단 실수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난다.

■ **시장 타이밍**

바닥에 사고 꼭대기에 팔려는 시도. 말은 쉽지만 실제로 맞추기는 어렵다.

■ 현금 비중

전체 투자금 중 현금으로 남겨둔 돈의 비율. 주가가 크게 빠질 때 좋은 기업을 살 여유가 된다.

■ 배당

기업이 번 돈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돈.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다시 굴리느냐다.

■ 손실의 비대칭

잃은 돈을 회복하려면 더 큰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뜻. 그래서 버핏은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을 먼저 본다.

■ 포트폴리오

내가 가진 투자 자산의 묶음. 주식, ETF, 현금이 어떤 비중으로 들어 있는지가 포트폴리오다.

■ 백테스트

과거 데이터로 투자 전략을 시험해보는 작업. 미래를 맞히는 도구는 아니고, 과거에 어느 정도 버텼는지 확인하는 데 쓴다.

■ PER(주가수익비율)

주가가 이익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숫자. PER이 높으면 시장이 그 기업의 미래 이익을 비싸게 쳐주고 있다는 뜻이다.

■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를 부르는 말. 기관·외국인처럼 큰 자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하는 사람.

■ 계좌 방어

수익을 크게 내기보다 손실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 행동. 나쁜장에서 오래 살아남게 해준다.

이 글은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을 소개하는 교육용 콘텐츠이며, 특정 종목·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문의 차트는 명시된 가정에 따른 산술 계산 및 예시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